

2021년 3월 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금리 안정 불구 매물 출회되며 급락

금융, 산업재, 여행, 레저 상승 Vs. 대형 기술주, 반도체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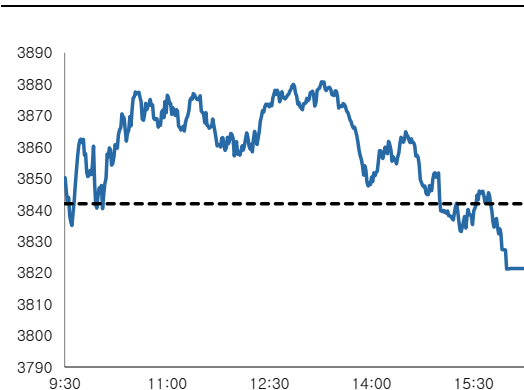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제 정상화, 금리 변화

미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매수세와 금리 상승으로 매물 출회가 유입되며 혼조 양상.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낙폭을 확대한 반면, 다우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특징. 한편, 국채 금리는 추가 부양책은 물론 경제지표 호전,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 경제 정상화 과정 속 10 년물 금리가 1.6%를 상회하자 기술주는 부진하고 금융, 산업재 등은 강세(다우 +0.97%, 나스닥 -2.41%, S&P500 -0.54%, 러셀 2000 +0.49%)

미 증시는 금리 상승 영향으로 업종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며 혼조세를 보임. 지난 주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1.9 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 하원에서 통과된 부양책 중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제외하고 추가 실업급여도 400 달러에서 300 달러로, 1,400 달러 규모의 일회성 자금 지급 대상 조정 등 수정된 것.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9 일) 하원에서 다시 표결하며 바이든의 서명 또한 곧바로 진행될 예정. 이러한 1.9 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의 자금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 된다는 점에서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을 촉발 했으며, 10 년물 기준 1.6%를 상회하게 만든 요인. 한편, 엘런 재무장관은 이번 통과된 부양책으로 미국 경제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내년에 완전 고용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영향

이런 가운데 고용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는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동향지수(ETI)가 99.69 에서 101.01 로 개선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물론 코로나 이전인 지난 해 2 월 109.27 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고용지표 개선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고용 정상화 가능성이 부각. 더 나아가 뉴욕연은이 발표하는 2 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를 기록하고 올해 가계 지출 전망 또한 지난 달(yoy +4.2%)보다 개선된 전년 대비 4.6% 증가로 발표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결국 추가 부양책 및 경제지표 호전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자 미 증시는 금융, 여행, 레저, 산업재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관련주는 부진하는 차별화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996.11	-1.00	홍콩항셍	28,540.83	-1.92
KOSDAQ	904.77	-2.03	영국	6,719.13	+1.34
DOW	31,802.44	+0.97	독일	14,380.91	+3.31
NASDAQ	12,609.16	-2.41	프랑스	5,902.99	+2.08
S&P 500	3,821.35	-0.54	스페인	8,444.20	+1.90
상하이종합	3,421.41	-2.30	그리스	827.06	+0.25
일본	28,743.25	-0.42	이탈리아	23,681.57	+3.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성장주 부진 Vs. 가치주 강세

애플(-4.17%)은 2017년 12월 출시된 iMAC Pro를 단종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더불어 미 국채 금리 상승 또한 매출 출회 요인 중 하나였다. 그동안 부진한 시장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 왔던 알파벳(-4.27%)은 물론 페이스북(-3.39%), MS(-1.82%)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서비스나우(-4.70%), 어도비(-4.45%), 시놉시스(-4.09%) 등 소프트웨어 업종도 부진했다. 마이크론(-4.36%), 퀄컴(-5.05%), AMAT(-6.85%) 등 반도체 업종은 물론 NVIDIA(-6.97%)와 페이팔(-5.42%) 등 비트 코인 테마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은 물론 부진한 판매 및 매출 출회가 지속된 테슬라(-5.84%)도 낙폭을 키웠다.

반면, 금리 상승으로 JP모건(+1.33%), 씨티그룹(+2.83%)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캐터필라(+0.64%), GE(+4.19%) 등 산업재가 상승 했다. 더불어 추가 부양책에 따른 경제 정상화에 기대로 부킹닷컴(+2.67%), 카니발(+2.30%), 델타항공(+3.61%), 디즈니(+6.27%) 등 여행, 항공, 레저 업종은 물론 TJX(+3.91%), 로스스토어(+6.40%) 등 소매 유통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디즈니는 4월 1일부터 일부 매장 재개장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코카콜라(+1.67%)는 RBC가 타겟(+2.47%)은 구겐하임이 실적 개선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7%	대형 가치주 ETF(IVE)	+1.17%
에너지섹터 ETF(OIH)	+1.70%	중형 가치주 ETF(IWS)	+1.10%
소매업체 ETF(XRT)	+6.10%	소형 가치주 ETF(IWN)	+2.25%
금융섹터 ETF(XLF)	+1.28%	대형 성장주 ETF(VUG)	-2.05%
기술섹터 ETF(XLK)	-2.42%	중형 성장주 ETF(IWP)	-2.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5.72%	소형 성장주 ETF(IWO)	-1.27%
인터넷업체 ETF(FDN)	-3.17%	배당주 ETF(DVY)	+2.18%
리츠업체 ETF(XLRE)	+0.4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0%
주택건설업체 ETF(XHB)	+1.9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7%
바이오섹터 ETF(IBB)	-1.94%	미국 국채 ETF(IEF)	-0.39%
헬스케어 ETF(XLV)	-0.25%	하이일드 ETF(JNK)	-0.70%
곡물 ETF(DBA)	-0.17%	물가연동채 ETF(TIP)	-0.55%
반도체 ETF(SMH)	-5.49%	Long/short ETF(BTAL)	+0.6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97.13	+0.15%	+7.49%	+23.68%
소재	477.82	+1.29%	+1.06%	+3.41%
산업재	796.38	+1.05%	+1.61%	+5.90%
경기소비재	1,255.55	-0.19%	-5.07%	-9.41%
필수소비재	663.55	+0.32%	+1.20%	-1.83%
헬스케어	1,311.39	-0.29%	-1.20%	-2.69%
금융	565.84	+1.29%	+2.44%	+10.37%
IT	2,206.54	-2.46%	-6.75%	-7.28%
커뮤니케이션	234.25	-1.46%	-1.39%	-0.08%
유틸리티	305.77	+1.39%	+1.34%	-5.38%
부동산	230.32	+0.53%	-0.99%	-2.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 차별화 진행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7% MSCI 신흥 지수 ETF 는 2.69%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3.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미국의 금리 상승과 중국 증시 영향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1% 하락으로 마감 했다. 중국 증시도 상승 출발 했으나,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련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 되며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비록 혼조세를 보였으나 경제 정상화 관련해 금융, 산업재 등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극명하게 진행 된 점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백신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과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가 높아지며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 되었던 여행, 레저는 물론 산업재, 소비재 관련 업종의 수익 개선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 수혜로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군의 경우 차익실현 욕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한편,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중 물가지표 및 미국 국채입찰을 앞두고 있어 오늘 한국 증시는 관련 소식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업종 차별화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급적으로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매물 출회 우려가 높다. 물론 경제 정상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어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돼 지수 전반에 걸친 움직임 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2 월 미국 컨퍼런스보드의 고용동향지수는 전월(99.69) 보다 개선된 101.01 을 기록해 2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이는 고용지표 개선 기대를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

1 월 미국 도재재고는 전월 대비 1.3% 증가해 예상(mom +0.9%) 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지난달 1.31 보다 낮아진 1.24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사우디 인프라 피해 없었다는 소식으로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장 초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자 상승 출발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1 년내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특히 사우디 인프라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낙폭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국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백신 접종 속도가 확산된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과 추가 부양책을 통한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BOE 총재가 양적완화 및 통화정책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국 경제 정상화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 기반해 달러 대비 약세폭은 제한 되었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6% 약세를 보인 가운데 신흥국 환율 또한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호전과 1.9 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특히 10 년물 국채 금리는 1.6%를 상회했다. 더불어 백신 접종 속도가 확대되고, 백신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국채입찰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장 후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1.2%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경제 정상화 이슈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달러 강세로 밀은 하락했으나, 옥수수와 대두는 수확 부진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5%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5.05	-1.57	+7.27	Dollar Index	92.413	+0.47	+1.51
브렌트유	68.24	-1.61	+7.14	EUR/USD	1.1845	-0.59	-1.69
금	1,678.00	-1.21	-2.61	USD/JPY	108.92	+0.56	+2.02
은	25.269	-0.07	-5.28	GBP/USD	1.3817	-0.17	-0.78
알루미늄	2,171.00	-0.23	+1.95	USD/CHF	0.9365	+0.79	+2.33
전기동	8,998.50	+1.16	-0.50	AUD/USD	0.7644	-0.55	-1.65
아연	2,782.00	+0.31	-1.21	USD/CAD	1.2666	+0.06	+0.16
옥수수	547.00	+0.27	+1.63	USD/BRL	5.8173	+2.36	+3.25
밀	646.50	-1.00	-0.58	USD/CNH	6.5533	+0.57	+1.29
대두	1,433.75	+0.26	+3.05	USD/KRW	1133.20	+0.63	+0.86
커피	129.15	+0.23	-4.90	USD/KRW NDF1M	1143.05	+1.31	+2.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98	+3.16	+18.07	스페인	0.397	+0.60	+7.50
한국	2.031	+3.60	+6.10	포르투갈	0.297	+1.00	+7.80
일본	0.123	+2.70	-3.20	그리스	0.945	-1.50	-5.60
독일	-0.277	+2.50	+5.70	이탈리아	0.755	+0.30	+9.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